

현대몽골어 정서법 구성에 대한 분석연구

－ 정서법(2018)의 ‘음절, 단어 넘김 규범’,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을 중심으로 －

김 기 성*

Ⅰ 국문초록 Ⅰ

이 연구에서는 2018년에 출판된 신 개정『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에 있는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의 내용을 통·번역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새로 시행하고 있는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 도모 차원에서 정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내용의 제6장과 제7장에 해당하는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과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제6장, 제7장 역시 기존의 1983년 발행본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단지 편집의 묘미를 살려 각 장의 일부 제목과 각 조항의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에 붙여 놓은 점들만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한국어로 소개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정리, 고찰은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실용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인 몽골어 학습자와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한 양 언어 학습자, 몽골학 전공자, 기타 관련 학문 연구자들에게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기초자료 정보와 어학적 인 논리를 동시에 함께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주제어] 현대몽골어, 정서법, 첨사, 후치사, 음절, 단어 넘김 규범, 한국인 몽골어 학습자,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양 언어 학습자

Ⅰ 목 차 Ⅰ

- I. 서 론
- II.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 III.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 IV. 결 론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전공 연구전담교수 / komong@naver.com

I. 서 론

이 연구는 현대몽골어 신 개정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¹⁾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각각 제6장, 제7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²⁾과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³⁾의 체계,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리, 분석을 통해 한국의 몽골어, 몽골학 전공자 및 특정 언어의 정서법 등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현대몽골어(키릴 현대몽골어)의 올바른 사용법(정서법,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대몽골어의 신 개정 정서법(2018)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일부 규정, 규범에 대해서는 김기성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⁴⁾ 즉, 신 개정 정서법의 내용 중 제1장 ‘몽골문자 규범(Монгол үсгийн тухай дүрэм) :

- 1) 여기에서 말하는 신 개정 정서법이란 2018년 6월 18일 몽골 대통령 산하 시민관(Иргэний танхим)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 안에 포함된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을 말한다. 이것은 몽골 정부(대통령 산하 언어 정책 기초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찬되고 법적 지위를 갖는 통일화된 개정 정서법이다(김기성, 『현대몽골어 정서법에 대하여 - ‘몽골문자 규범’, ‘약화모음 규범’을 중심으로 -』, 『몽골학』 58, 한국몽골학회, 2019a, 131쪽; 김기성, 『현대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해석과 논평 - ‘탈락모음 규범’, ‘경음, 연음부호 규범’, ‘의미부 정서 규범’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2019b, 115쪽). 물론 『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2018)』 내의 정서법 내용부분만 보아서는 신 개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983년본 Ц.Дамдинсүрэн · Б.Осор의 ‘몽골 문자 규범(Монгол үсгийн дүрэм)’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하지만 『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2018)』의 경우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해 Ц.Дамдинсүрэн · Б.Осор의 사전 대비 두 배 이상의 단어 용례 및 외래어 등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한다면 신 개정이라는 표현은 주로 사전에 국한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서법 규정이 엄연히 사전 안에 함께 포함돼 있고, 또한 미약하나마 편집상의 일부 개정 모습도 보이므로 편의상 이를 신 개정 정서법으로 명명하였다. 논의 전개의 편의상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2018)』 내의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을 신 개정 정서법으로 약칭해 사용하기로 한다. 또는 필요성에 따라 때때로 ‘정서법(2018)’ 등의 약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편, 1983년본 정서법에 해당하는 Ц.Дамдинсүрэн · Б.Осор의 『Монгол үсгийн дүрмийн толь(몽골 문자 규범 사전)』 내의 ‘몽골 문자 규범(Монгол үсгийн дүрэм)’은 ‘몽골 문자 규범(1983)’으로도 약칭해 서로 구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본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r>(검색일 : 2021.11.26)).
- 2) 줄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몽골어 단어를 부득이하게 한 줄에 다 쓰지 못할 경우, 음절 구분에 따라 다음 줄로 끊어 넘겨야 할 때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동아시아 언어에서의 ‘줄 바꿈’ 규칙과도 일부 유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위키백과, 「줄 바꿈 규칙」, 2021, https://ko.wikipedia.org/wiki/%EC%A4%84_%EB%B0%94%EA%BF%88_%EA%B7%9C%EC%B9%99(검색일 : 2021.11.26)).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출판사 등의 교정, 편집, 출판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간혹 줄의 끝에 오는 몽골어 단어를 이 같은 정서법 규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옮겨 끊어 넘기지 못하고, 낱글자로 그냥 넘길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구한다.
- 3) 현대몽골어의 첨사(Сул үг, particle)는 문장의 끝이나 문장 내의 특정 성분 뒤에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 결합하여 해당 문장과 성분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더욱 다양하게 부가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문장 전체 또는 특정 성분과 함께 사용하여 각종 부가 의미나 양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확인, 허용, 의문, 의혹, 긍정, 부정, 숙고, 추정, 확신, 강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연구자들에 따라 ‘불변화사’, ‘보조사’, ‘특수 조사’, ‘수식사(чимэх үг)’, ‘부가어’, ‘꾸밈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필자는 ‘첨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첨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강신을 참조할 수 있다(강신, 『현대몽골어 연구』, 문예평, 2004, 51~168쪽). 한편, 후치사(дагавар үг, postposition)는 선행어(어구)를 지배하여 문법적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 어휘 요소이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며 의존성을 지닌다. 명사, 부사 따위의 체언류에 후행하여 장소, 시간, 목적, 수와 규모, 원인, 이유, 동기, 비유 등을 나타내거나 의미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요소를 말한다(박상택, 『현대 몽골어 후치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1~32쪽). 현대 몽골어의 후치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상택을 참조할 수 있다.
- 4) 김기성, 앞의 논문, 2019a, 129~156쪽; 김기성, 앞의 논문, 2019b, 113~135쪽.

제1조~제14조’와 제2장 ‘약화모음 규범(Балархай эгшгийн дүрэм) : 제15조~제27조’, 제3장 ‘탈락모음 규범(Гээгдэх эгшгийн дүрэм) : 제28조~30조’, 제4장 ‘경음·연음부호 규범(Хатуу, зөөлний тэмдгийн дүрэм) : 제31조~제34조’, 제5장 ‘의미부(의미 부분) 정서 규범(Утгат хэс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 제35조~제44조’ 등에 대한 분석, 정리, 소개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본 글에서는 이들 외의 정서법의 체계,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⁵⁾

현대몽골어(키릴 현대몽골어)의 정서법에 대한 체계와 내용 등이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한국어로 정리, 소개된 적은 없으므로, 이러한 글은 정서법 관련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는 학술적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성격은 논증과 분석의 틀을 갖춘 논문형식이라기보다는 통·번역학적 측면과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이해 도모, 증진 차원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에 역점을 둔 연구이다. 원전 자료에 대한 개황 소개, 번역 자료 제공, 해석과 해설, 논평, 서평 등도 이미 다방면의 분야에서 연구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고, 정서법을 현대몽골어 어학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원전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 소개 등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 중 제6장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 제45조~제49조’, 제7장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 제50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를 분석, 정리한다.

글의 전체적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을 포함해 제2장에서는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 중 제6장에 해당하는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을, 제3장에서는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의 제7장에 해당하는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분석, 정리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결론짓기로 한다.

II.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의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중 제6장에서는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⁶⁾을 다루고 있다.

5)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2018)은 제1장 ‘몽골문자 규범(Монгол үсгийн тухай дүрэм) : 제1조~제14조’, 제2장 ‘약화모음 규범(Балархай эгшгийн дүрэм) : 제15조~제27조’, 제3장 ‘탈락모음 규범(Гээгдэх эгшгийн дүрэм) : 제28조~30조’, 제4장 ‘경음·연음부호 규범(Хатуу, зөөлний тэмдгийн дүрэм) : 제31조~제34조’, 제5장 ‘의미부(의미 부분) 정서 규범(Утгат хэс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 제35조~제44조’, 제6장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 제45조~제49조’, 제7장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 제50조’, 제8장 ‘몽골문자에 사용하는 구두점(Монгол бичигт хэрэглэх цэг цэглэл) : 제51조~64조’로 구성되어 있다(김기성, 앞의 논문, 2019a, 135쪽).

6) 1983년 본 기존의 정서법에서도 제6장의 제목을 ‘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음절, 단어 넘김 규범)’으로 똑같이 적고 있다(Ц.Дамдинсүрэн·Б.Осор, Монгол үсгийн дүрмийн толь, БНМАУ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сурах бичиг сэтгүүлийн нэгдсэн редакцы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83, pp.419~422). 한편, 2018년본 신 개정 정서법에서는 제6장의

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45 Үе

§46 Үг шилжүүлэх нь

§47 Том үсгээр бичих нь

§48 Үг хурааж бичих

§49 Гадаад үгийг бичих

〈그림 1〉 제6장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출처 : 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r>(검색일 : 2021.11.26)

제6장을 구성하고 있는 ‘음절, 단어 넘김 규범’은 정서법의 전체적 체계 중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45조 ‘음절(Үе)’, 제46조 ‘단어 넘김(Үг шилжүүлэх нь)’, 제47조 ‘대문자 표기(Том үсгээр бичих нь)’, 제48조 ‘단어 축약 표기(Үг хурааж бичих)’, 제49조 ‘외래어 표기(Гадаад үгийг бичих)’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정리하고 분석, 해석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 제45조 ‘음절(Үе)’

음절(syllable)은 발화 연쇄 내에서 각각의 음운들을 묶는 최소의 단위이다. 대부분 모음 앞뒤에 하나 이상의 자음이 결합해 한 음절을 형성한다. 이 조항에서는 음절의 경계에 여러 자음과 부호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절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 번의 호흡으로 발음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음성을 음절이라고 한다. 단어는 한 번의 호흡으로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로 음절이 구성된다. 장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음절이 된다. 예를 들어 ман-дуул-сан, хой-но, хойш-ло-ход, тэм-дэг-лэг-дэх-дээ, сурт-лаа-раа, хонь, морь, о-ё 등과 같다.

주요 내용인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개별 조항들을 1983년본 정서법과는 다르게 〈그림 1〉처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내용을 대표하는 소재목들을 붙여 놓았다. 물론 개별 조항의 모든 내용은 1983년본과 별다른 점 없이 대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규범은 한국어를 포함,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동아시아 언어에서의 ‘줄 바꿈’ 규칙과도 일부 유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줄 바꿈 규칙은 글의 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말하는데, 주로 출판이나 인쇄,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부 문자나 문장부호, 기호, 숫자 등이 줄의 양 끝에 위치하게 되거나, 또는 표기 중간에 줄이 나뉘어서 끊어지게 되는 경우, 이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내용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글을 알맞게 다듬어서 보기 좋고 전달이 쉽도록 줄 바꿈을 사용한다는 규칙이다. 일반적으로 줄 바꿈 규칙에는 1) 줄 바꿈 강제 규칙과 2) 줄 바꿈 금지 규칙이 있으며, 1) 줄 바꿈 강제 규칙에는 지정 폭 줄 바꿈, 지정 문자 줄 바꿈이, 2) 줄 바꿈 금지 규칙에는 줄머리 금지 규칙(행두금지), 줄끝 금지 규칙(행말금지), 나눔 금지 규칙(분리금지)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위키백과, 「줄 바꿈 규칙», 2021, https://ko.wikipedia.org/wiki/%EC%A4%84_%EB%B0%94%EA%BF%88_%EA%B7%9C%EC%B9%99 (검색일 : 2021.11.26)). 이들 중 몽골어의 단어 넘김 조항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줄머리 금지 규칙, 줄끝 금지 규칙, 나눔 금지 규칙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몽골어 정서법의 단어 넘김 규정은 말 그대로 주로 문자, 단어에 관한 내용인 데 반해, 한국어의 줄 바꿈 규칙은 주로 출판이나 인쇄,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 등에서 사용하는 기호나, 문장 부호, 숫자,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몽골어 정서법에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어문생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규정 등이 시급히 보충,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한국어의 줄 바꿈 규칙의 줄머리 금지 문자와 줄끝 금지문자 등에 대해선 위에 언급한 웹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단어를 말할 때 :

1. 음절의 경계에 자음이 하나 있으면 그 자음의 앞, 자음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자음의 앞, 세 개가 있으면 세 번째 자음의 앞, 네 개가 있으면 네 번째 자음의 앞으로 음절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го-лын, ол-дох, үлд-сэн, тө-рөлхт-ний 등과 같다.
2. 경음부호와 연음부호는 앞에 있는 자음을 포함해 분절한다. 예를 들어 үзье-е, ха-рууль-я 등과 같다.

§ 제46조 ‘단어 넘김(Үг шилжүүлэх нь)’

한 줄에 단어를 미처 다 쓰지 못해 다음 줄로 이어 쓰게 될 때 음절 뒤에 하이픈(hyphen 붙임표, 이음줄)을 붙여 사용하는 단어 넘김에 대한 사항이다. 즉, 줄의 끝에 쓰게 된 단어를 다음 줄로 끊어 넘겨 적어야 할 경우, 독립된 음절이라 할지라도 글자 하나를 홀로 남겨 놓는다거나 다음 줄에 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한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동아시아 언어에서의 ‘줄 바꿈’ 규칙과도 일부 유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줄에서 다른 줄로 단어를 넘겨 적을 때 음절로 분리해 표기한다. 한 음절을 두 줄에 나누어 적을 수는 없다. 비록 독립된 음절이라 할지라도 글자 하나를 줄의 끝에 남겨 놓는다거나 새로운 줄로 넘겨 적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олох, явууль-я라고 할 때 끊어서 옮길 수 없다.⁷⁾ 끊어서 옮겨 적은 하이픈(붙임표, 이음줄)은 오로지 줄의 끝에 놓는다.

§ 제47조 ‘대문자 표기(Том үсгээр бичих нь)’

몽골어에서 문장의 첫 글자, 사람 이름, 동물, 도시, 산, 강 등과 같은 이름, 공적 기관 및 공공 기관명, 고유명사, 국가 이름, 서적, 신문 잡지, 협동조합 등의 이름, 기념 사진 등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규정이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문자 표기 :

1. 문장의 처음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Манай эх орон уудам, ард түмэн нь эрх жаргалантай билээ. Бид энх тайвныг сахин хамгаална 등과 같다.
2. 사람 이름, 동물, 도시, 산, 강 등과 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않은 고유한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예를 들어 Дамдины Сүх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Энх тайвны гудамж, Богд уул, Орхон гол, Шувуун саарал (морь), Банхар (нохой) 등과 같다.

7) ‘олох’, ‘явууль-я’의 경우, 각각 ‘о-ло-х’, ‘я-вууль-я’처럼 음절 구분이 가능한데 줄의 끝이나 처음에 ‘о-’, ‘х’, ‘я-’, ‘я’와 같이 글자 하나가 오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즉, 글자 하나를 홀로 남겨 놓는다거나 다음 줄에 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주 긴 단어가 아니라면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 세계의 공적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이름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모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Нэгдсэн Үндэстний Байгууллага(유엔), Дэлхийн Энх Тайвны Зөвлөл(세계평화이사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н Туслах Зөвлөл(경제상호원조협의회) 등과 같다.
4. 국가와 국가 중앙정부의 위원회, 협의회, 정부 부처, 협회(연맹) 등의 기관 이름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모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ьсгалт Намын Төв Хороо(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Сайд нарын Зөвлөл(몽골인민공화국 장관협의회), Монголын Хувьсгалт Залуучуудын Эвлэл(몽골 혁명청년연맹),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몽골음악작곡가협회),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국민교육부) 등과 같다. 그 밖의 중앙정부 산하의 관청, 공장, 도(아이막), 군(шум), 구역(지역), 문화 과학 등과 관련된 장소의 이름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지 첫 단어의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Сурган хүмүүжүүлэх ухааны хүрээлэн(교육학연구소), Сэлэнгэ аймгийн Намын хороо(셀енгеаймак 당 위원회), Ерөөгийн Сангийн аж ахуй(예리 국영농장), Ноосны үйлдвэрийн нэгдэл(양모산업조합), Хүүхдийн хувцасны үйлдвэр(아동복공장) 등과 같다.

설명 :

- a) 제47조 제3항, 제4항에서 명시한 고유명사는 상세하게 쓰거나 간략하게 쓰거나 어떻게 쓰든지 간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Зөвлөлт Социалист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Холбоот Улс, Зөвлөлт Холбоот Улс, Зөвлөлт Улс; Монголы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лэлийн Төв Зөвлөл, Үйлдвэрчний Эвлэлийн Төв Зөвлөл, Төв Зөвлөл; Их сургууль,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등과 같다.
 - b) 몽골,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 이름을 단지 일반적인 인명(人名)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국가 이외의 다른 물건(상품)과 일반 명사 앞에서 한정사(관형어)로 사용하면 소문자로 적는다. 예를 들어 Жижигхэн монгол эмээл моринд халтай. Бид орос хэл суралцахыг оролдоно 등과 같다. 또한 “монгол хэл(몽골어)”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로 쓰고, “Монголын хэл(몽골의 언어)”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적는다. 그 이유는 монгол хэл(몽골어)이라고 할 때의 “Монгол(몽골)”은 단지 한정사이며 “ямар(어떤)”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되지만, Монголын хэл(몽골의 언어)이라고 할 때의 “Монгол(몽골)”은 국가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тэр монголын үс нь хар(저 몽골인의 머리는 검정이다)라고 할 때는 몽골을 소문자로 적는다. 몽골 국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몽골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v) 대문자로 써야 하는 몇 개의 단어로 형성된 개체를 축약해 한 단어로 사용할 경우, 그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Манай байгууллагын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ьсгалт Намын гишүүд цуглав. Манайд намын хэдэн гишүүн цуглав.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төлөө зүтгэх, улсын төлөө зүтгэх 등과 같다.
5. 서적, 신문 잡지, 협동조합 등의 이름은 큰따옴표(“ ”) 안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В.И.Лениний “Юу хийх вэ” зохиолыг уншиж тэмдэглэл хөтлөв, “Үнэн” сонин, “Ардын

- төр” сэтгүүл, Явуухулангийн “Мөнгөн хазаарын чимээ” зохиол, “Бүтээлч” нэгдэл 등과 같다.
6. 존경의 의미로 사용한 일부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Жаран насны ойг тань тохиолдуулан Танд эрүүл энх, урт удаан наслахыг ерөөе; Даян дэлхийд Энх тайван мандтугай! 등과 같다.
 7. 특별한 기념적 사건의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Октябрийн хувьсгал, Майн баяр 등과 같다.
 8. 함께 적으면서 굳어져 버린 두 단어로 형성된 고유명사의 두 번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붙임표(이음줄)를 넣으며 두 번째 위치한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Баян-Өлгий, Буян-Өлзий, Баруун-Урт хот 등과 같다.

§ 제48조 ‘단어 축약 표기(Үг хурааж бичих)’

몽골어에서 단어를 줄이거나 축약해 표기하는 규정이다. 하나의 이름이지만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름 일 경우, 이를 줄이거나 축약해서 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줄이거나 축약해서 표기해야 하는가를 일러두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준말’,⁸⁾ ‘약어’, ‘줄임 말’,⁹⁾ ‘축약(축약어)’¹⁰⁾ 등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한편, ‘단어 축약 표기’를 ‘단어 줄임 표기’ 등과 같이 옮길 수도 있을 듯하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이름은 축약해(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1. 처음절로 축약한다. 예를 들어 ня-бо(нягтлан бодох), тө.(төгрөг), мө.(мөнгө) 등과 같다.
2. 첫 글자로 축약한다. 예를 들어 МАХН, БНМАУ 등과 같다.
3. 간혹 두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이름을 축약할 때 두 단어의 첫 글자로 축약한다. 예를 들어 БХ-Баянхонгор, УБ-Улаанбаатар 등과 같다.
4. 일부 단어는 처음과 끝 글자로 축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р хурал, 5-р сар, н-р(нөхөр),

8) ‘준말’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사이’가 ‘새로’, ‘잘가닥’이 ‘잘각’으로 된 것 따위를 말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동의어인 ‘약어’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단어가 줄어든 것을 준말 또는 약어로 쓸 수 있는데, 보통 두 단어 이상이 줄어든 말은 약어라 한다(국립국어원, 「준말」,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 : 2021.11.26); 국립국어원, 「약어」,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 2021.11.26)).

9) ‘줄임 말’이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말. 또는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 만든 말. ‘사이’가 ‘새로’, ‘지방 자치 제도’가 ‘지자체’로 된 것 따위”를 일컫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뜻풀이가 없으며, 『우리말샘』에 나타나 있는데 ‘준말’과 ‘약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국립국어원, 「줄임 말」, 『우리말샘』, 2021,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52226&viewType=confirm(검색일 : 2021.11.26)). ‘줄임 말’이라는 말이 ‘준말’과 ‘약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몽골어의 해당 조항 예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줄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10) ‘축약’이란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상. ‘종고’가 ‘조코’로, ‘국화’가 ‘구화’로, ‘가리+어’가 ‘가려’로, ‘되+어’가 ‘돼’로 되는 것 따위”를 일컫는다. 즉, 두 형태소가 만나면서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줄어들어서 간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축약」,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 2021.11.26)).

д-р(доктор) 등과 같다.

5. 고유명사를 글자로 축약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음절로 축약할 때는 음절의 첫 글자 또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사람의 성씨(姓氏)를 제외한 고유 이름은 축약한 글자의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Жишээлбэл: МАХН, БНМАУ, ХЗХ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 БНАфГУ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Афганистан Улс), Мон Ца Мэ буюу МОНЦАМЭ, Д.Нацагдорж, Ц.Гайтав 등과 같다.

§ 제49조 ‘외래어 표기(Гадаад үгийг бичих)’

몽골어에서 외래어를 표기하는 규정이다. 러시아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어의 유입과 사용을 기준으로 한 외래어 표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¹¹⁾ 외래어는 몽골어의 모음조화 규칙과 약화모음 규범, 탈락모음 규범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여러 관계 조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몽골어에 오래전에 들어와서 대중들에게 외래어라고 여겨지지 않는 단어는 몽골어 정서 규범에 따라 표기한다. 예를 들어 шил, эрдэнэ, цонх, янз, судар, саван, савхи, булигаар 등과 같다.
2. 최근에 외국어에서 받아들여 외래어라는 점이 대중에게 알려진 단어를 표기할 경우는 해당 언어의 발음과 문자의 형상을 고려한다. 러시아어 단어와 러시아를 통해 들어온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어로 어떻게 쓰는가를 준수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мотор, феодал, трест, трактор, большевик, артель 등과 같다.
3. 외래어는 몽골어의 모음조화 규칙과 약화모음 규범¹²⁾, 탈락모음 규범¹³⁾ 따르지 않는다.
4. 러시아어의 *ия* 글자로 끝난 단어의 마지막 *ия* 글자는 대부분 생략한다. 예를 들어 Румыния-Румын, станция-станц, комиссия-комисс, лекция-лекц 등과 같다. 그러나 *ия* 글자로 끝난 일부 단어

11) 이 조항의 규정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래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러시아어 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어문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각국의 언어가 외래어로 유입,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한류 영향에 따라 한국어의 많은 문화어도 몽골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어디에서도 살피볼 수 없듯이 이러한 다양한 외래어 단어들을 표기, 전사하는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어문생활 요구를 미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외래어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몽골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규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필요성에 따라 김기성, 문희연, 김, 이성규·정윤자 등과 같은 여러 연구자가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통일된 표기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김기성, 『현대몽골어의 한글 표기에 대해』, 『몽골학』 11, 한국몽골학회, 2001, 267~292쪽; 김기성,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을 위한 몽골어 표기세칙 및 표기일람표 제안』, 『제5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동북아 유목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몽골국립대학교 울란바타르대학, 한국몽골학회, 2012, 144~167쪽; 문희연, 『현대 몽골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성규·정윤자, 『음성실험을 바탕으로 한 몽골어 자음과 단모음의 한글 표기』, 『몽골학』 28, 한국몽골학회, 2010, 101~132쪽).

12) ‘모음조화 규칙(эгшиг зохицох ёс)’은 몽골어 정서법(2018)의 제1장 ‘몽골문자 규범(Монгол үсгийн тухай дүрэм)’ 내의 제8조 내용이며, ‘약화모음 규범(балархай эгшигийн дүрэм)’은 제2장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정리와 분석은 김기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기성, 앞의 논문, 2019a, 140~152쪽).

13) ‘탈락모음 규범(гээгдэх эгшигийн дүрэм)’은 정서법(2018)의 제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김기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기성, 앞의 논문, 2019b, 117~120쪽).

의 마지막 자음이 연음화되었다면 단지 я 글자만 생각한다. 예를 들어 Азия-Ази, Италия-Итали 등과 같다. 외래어의 마지막에 강세가 없는 단모음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생각한다. 예를 들어 фабрика-фабрик, аптека-аптек, норма-норм, тонна-тонн 등과 같다. 만약 외래어의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다면 생략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кино, пальто, шевро 등과 같다.

5. 외래어에 몽골어 접사를 연결할 수 있다. 외래어에 특정 남성 모음이 있으면 남성이 접사를 연결한다.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다른 모음이 있으면 강세가 있는 모음에 맞추어 접사를 연결한다. 만일 남성 모음에 강세가 배당되지 않았다면 첫 남성 모음에 맞추어 접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аптекаар, пионерын, театрууд, бригад, механикжсан, автобусаас, ацетоны 등과 같다. 두 단어에서 형성된 하나의 명사의 경우 마지막 단어의 모음에 맞추어 접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агротехникээр, амперметрийн, атмосферээс 등과 같다.

변칙 예외 조항 :

일부 단어 끝의 강세를 지닌 남성 모음이 약화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전통 몽골어법에 따라 첫째 음절의 모음에 맞추어 모음을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кило-килээр, килтэй, киллэвэл, киллэнэ 등과 같다.

6. 외래어에 어떠한 남성 모음이라도 없다면 여성어 접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хими-химийс, лент-лентээр, шеф-шефийн, трест-трестүүд 등과 같다.
7. к 문자는 г 문자 규범을 따라 к 문자로 끝나는 남성어에 ий 모음을 연결하며, к 문자를 유성자음(모음수반 자음)처럼 여겨 접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фабрикийн, паркт, тактика 등과 같다. 또한 ш 문자는 ш 문자처럼 여겨 접사를 연결한다.
8. Б, п, ф, в 문자는 같은 계열의 문자로 동등하게 본다. 예를 들어 Ямар драп бэ? Хэний шкаф бэ? Хэдэн куб бэ? шкафт, клубт 등과 같다.
9. 러시아어의 у 문자는 몽골의 ү 문자와 같은 여성 모음으로 여겨 접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клубээс, группийн 등과 같다.

Ⅲ.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의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중 제7장에서는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¹⁴⁾을 다루고 있다.

14) 1983년본 기존의 정서법에서도 제7장의 제목을 ‘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으로 적고 있다(Ц.Дамдинсүрэн · Б.Осор, *Монгол үсгийн дүрмийн толь*, БНМАУ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сурах бичиг сэтгүүлийн нэгдсэн редакцы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83, р.423). 2018년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2018년본에서는 제7장의 주요 내용인 제50조 조항에 <그림 2>처럼 1983년본 정서법과는 다르게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내용을 대표하는 소재목을 붙여 놓았다. 역시 조항의 모든 내용은 기존의 1983년본과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50 Сул баймжийг саланги бичих

〈그림 2〉 제7장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출처 : 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r>(검색일 : 2021.11.26)

제7장을 구성하고 있는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은 정서법의 전체적 체계 중 제50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략한 감이 있다. 제50조 ‘첨사 따로 띄어쓰기(Сул баймжийг саланги бичих)’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 제50조 ‘첨사 따로 띄어쓰기(Сул баймжийг саланги бичих)’

일부의 첨사와 감탄사, 후치사에 대한 정서법 규정이다.¹⁵⁾ 의문 첨사, 허락 첨사, 강조 첨사 등과 호칭 감탄사, 후치사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문 첨사(асуух сул үг) бэ, вэ는 가끔은 장모음으로, 가끔은 모음 없이 발음되기도 하지만 вэ와 в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항상 бэ, вэ처럼 단모음을 취해 표기한다. 예를 들어 Таны нас хэд вэ? Та хэзээ буцах вэ? Хэн хэлэх вэ? 등과 같다. В, м, н 글자로 끝난 단어에 бэ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Яасан их ов бэ? Аль аймгийн ямар сум бэ? Өнөөдөр хэдэн бэ? 등과 같다. 그 밖의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вэ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Ямар газар вэ? Ямар өргөн гол вэ? Хэний хонь вэ? Хэн хэлэх вэ? Одоо яах вэ? (яахав 라고 쓰면 안 됨) 등과 같다.
2. 의문 첨사 юу, юү는 장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끝난 단어에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예를 들어 Адуу юу, тэмээ юү? Малгай юу, бээлий юү? 등과 같다. 이 밖의 기타 단모음, 자음으로 끝난 단어에는 уу, үү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хана уу?, унь уу?, тэрэг үү?, чарга уу?¹⁶⁾ 등과 같다.
3. Л, ч, шүү 첨사는 어떠한 단어를 수반해 쓰더라도 독자적으로 따로 띄어 쓴다. 예를 들어 Сайн л явна. Өвс ч их ургажээ. Тоогоо бодно шүү 등과 같다.
4. 허락 첨사(зөвшөөрөх сул үг) за는 단모음으로 표기한다.
5. Даа, дээ, доо, дөө 첨사는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따로 띄어 쓴다. 예를 들어 авна даа, хэлнэ дээ, олно доо, өгнө дөө 등과 같다.
6. 호칭 감탄사(дуудах аялга үг) аа, ээ, оо, өө는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따로 띄어 쓴다.

15)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며, 다른 말(단어, 어휘)에 의존해서 사용하는 첨사(сул үг)와 후치사(дагавар үг)에 대한 규정이다. 각주 3)의 내용 참조. 첨사와 감탄사, 후치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강신, 김기성, 박상택 등을 참조할 수 있다(강신, 앞의 책, 문예림, 2004, 51~168쪽;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사 대조 연구」, 『몽골학』 35, 한국몽골학회, 2013, 223~259쪽; 박상택, 앞의 논문, 2013).

16) 원문 내용에는 의문부호 ‘?’가 빠져 있으므로 필자가 보충함.

- 다. 예를 들어 хүүхдүүд ээ, залуучууд аа, нөхөд өө 등과 같다.
7. 후치사(дагавар үг) уруу 라고 사용할 때는 모음조화를 따르지 않으며, 처음의 모음을 빼버리지 않는다. 남성어, 여성어 어떠한 단어이든 уруу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уул уруу (уул өөд 라고 하는 것과 같음), гэр уруу (гэр өөд 라고 하는 것과 같음), гол уруу, өрөө уруу 등과 같다. Уул руу, гэр лүү라고 쓰지 않는다.
 8. 비활성 어근 “а”를 탈락시킨 “сан”, “даг” 어미는 해당 단어와는 독립적으로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сан, сэн, сон, сөн, даг, дэг, дог, дөг”이라고 적는다. 예를 들어 явсан сан, явсан даг, ирсэн сэн, ирсэн дэг, очсон сон, очсон дог, өгсөн сөн, өгсөн дөг, хардаг сан, хардаг даг, мэддэг сэн, мэддэг дэг 등과 같다.
 9. Тэрчлэн, мэтчилэн, энэчлэн, сэтгэлчлэн¹⁷⁾ 등과 같이 чилэн 접사는 약화모음 규범과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해당 단어와 함께 붙여 적는다. 예를 들어 түүнчлэн, явдагчлан, явсанчлан 등과 같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2018년에 출판된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 규정 사전(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에 있는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의 내용을 통·번역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며, 새로 시행하고 있는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 도모 차원에서 정리,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정서법(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내용의 제6장과 제7장에 해당하는 ‘음절, 단어 넘김 규범(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과 ‘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제6장, 제7장 역시 기존의 1983년본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단지 편집의 묘미를 살려 각 장의 일부 제목과 각 조항의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 붙여 놓은 점들만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국어로 소개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정리, 고찰은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증진 차원에서 실용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인 몽골어 학습자와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한 양 언어 학습자, 몽골학 전공자, 기타 관련 학문 연구자들에게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기초 자료 정보와 어학적인 논리를 동시에 함께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신 개정 몽골어 정서법의 제6장, 제7장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어로 정리, 고찰하면서 좀 더 적절하고 효과적 표현으로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후속 연구, 소개 속에서

17) 원문 내용에는 “Тэрчлэн мэтчилэн энэчлэн, сэтгэлчлэн”처럼 단어 사이에 쉼표 ‘,’가 빠져 적혀 있다. 1983년본, 2018년 신 개정본 모두 오류로 보인다. “Тэрчлэн, мэтчилэн, энэчлэн, сэтгэлчлэн”으로 고쳐 적는다.

보완하거나 다시 바로 잡기로 한다. 이 연구가 현대몽골어의 정서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신, 『현대몽골어 연구』, 문예림, 2004.
- 김기성, 「현대몽골어의 한글 표기에 대해」, 『몽골학』 11, 한국몽골학회, 2001.
- 김기성,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을 위한 몽골어 표기세칙 및 표기일람표 제안」, 『제5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동북아 유목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몽골국립대학교 울란바타르대학, 한국몽골학회, 2012.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사 대조 연구」, 『몽골학』 35, 한국몽골학회, 2013.
- 김기성, 「현대몽골어 정서법에 대하여 - ‘몽골문자 규범’, ‘약화모음 규범’을 중심으로 -」, 『몽골학』 58, 한국몽골학회, 2019a.
- 김기성, 「현대몽골어 정서법에 대한 해석과 논평 - ‘탈락모음 규범’, ‘경음, 연음부호 규범’, ‘의미부 정서 규범’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2019b.
- 문히연진, 「현대 몽골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상택, 「현대 몽골어 후치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성규 · 정윤자, 「음성실험을 바탕으로 한 몽골어 자음과 단모음의 한글 표기」, 『몽골학』 28, 한국몽골학회, 2010.
- 국립국어원, 「약어」,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 2021.11.26).
- 국립국어원, 「준말」,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 : 2021.11.26.).
- 국립국어원, 「줄임 말」, 『우리말샘』, 2021,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52226&viewType=confirm(검색일 : 2021.11.26).
- 국립국어원, 「축약」,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 2021.11.26).
- 두산백과, 「모음조화」,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805&cid=40942&categoryId=32978>(검색일 : 2021.11.26.).
- 위키백과, 「줄 바꿈 규칙」, 2021, https://ko.wikipedia.org/wiki/%EC%A4%84_%EB%B0%94%EA%BF%88_%EA%B7%9C%EC%B9%99(검색일 : 2021.11.26.).
- X.Далхажав · Ц.Цэрэнчимэд, *Зөв бичих зүйн толь бичиг*, БНМАУ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1974.

Ц.Дамдинсүрэн · Б.Осор, *Монгол үсгийн дүрмийн толь*, БНМАУ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сурах бичиг сэтгүүлийн нэгдсэн редакцы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83.

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r>(검색일 : 2021.11.26.).

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Монгол кирилл цагаан толгой」,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r#%D0%94%D2%AF%D1%80%D1%8D%D0%BC_1 (검색일 : 2021.11.26.).

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Толийн тухай」,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about>(검색일 : 2021.11.26.).

Хэлний бодлогын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 「Үг шилжүүлэх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журамласан толь*, 2021, http://toli.gov.mn/r#%D0%94%D2%AF%D1%80%D1%8D%D0%BC_46(검색일 : 2021.11.26.).

MUNGUNTSETSEG Badmaavanchin, 「Кирил үсгийн зөв бичих дүрмийн зарим асуудал: Уламжлал ба өөрчлөлт」, 『한국몽골학회 제40회 학술대회 전통유목에서 Digital Nomad로 – 몽골리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 (사)한국몽골학회,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2017.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12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mposition of Modern Mongolian Orthography - Focusing on 'Rules of Syllable and Word Transfer', 'Rules of Particles and Postpositions' -

Kim, Kisung*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orthography(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in the new revision of the『Mongolian Orthography Regulation Dictionary』 published in 2018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summarized and introduced this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newly revised Mongolian orthography which is newly enforced.

For lack of space, we focused on 'Rules of Syllable and Word Transfer(Үеийн тухай, үг шилжүүлэх дүрэм)', 'Rules of Particles and Postpositions(Сул үг, дагавар үгийг зөв бичих дүрэм)' corresponding to Chapters 6 and 7 of the contents of the 'orthography(Зөв бичгийн дүрэм)'.

Since the specific and overall contents about the Mongolian orthography have not been introduced in Korean, it can be said that the analysis, summary, and introduction of this are of great significance not only academically, but also practically in terms of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revision of Mongolian orthography.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in terms of providing basic data necessary for majors of Mongolian and Mongolian studies and other related scholars.

[Keywords] Modern Mongolian(현대몽골어), Orthography(정서법), Cyrillic Mongolian Script(키릴 몽골 문자), Traditional Mongolian Script(전통 몽골문자), Rules of Syllable and Word Transfer(음절, 단어 넘김 규범), Rules of Particles and Postpositions(첨사, 후치사 정서 규범)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Mongolian Studies, School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Dankook University